22과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 - 신창훈 목사

에스라 7장을 찾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번 주 공과는 78과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우리 교사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배우기 전에 에스라 당시의 그 배경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유다가 멸망한 것은 BC 몇 년이죠? 586년입니다.

그 멸망 이 전에 3차 침공으로 멸망한 거고 1차 침공은 BC606년에 있었습니다.

그 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족계층이 끌려갔고요,

3차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 1차 포로교환이 몇 년에 있었습니까?

536년에 있었죠.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606년에서 70년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536년이 나오죠.

그 때 귀환할 때 인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70년 만에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락한 생활 터전을 버리고 그 위험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온 5만 명 정도의 사람은 신앙의 특공대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신앙 하나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하려고 했던 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었죠.

성전지대를 놓았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다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 성전을 완성한 연도는 몇 년이죠?

516년입니다.

그것도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586년에 성전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 성경이 기록된 그 부림절 사건이 있습니다.

하만의 계교로 페르시아 전체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다 몰살당할 뻔한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 에스더의 활약으로 그 부림절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았던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는 너희 자리가 아니다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그 에스더에 나타난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로인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귀환의 인도자는 방금 읽은 성경 에스라,

이 에스라를 기록한 에스라입니다.

하지만 이때 돌아온 사람은 불과 천 몇 백 명 이 천 명이 채 안 되는 적은 숫자 입니다.

그들이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BC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귀환이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 때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했다는 것은 느헤미야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죠.

이 에스라가 귀환한건 2차 귀환 때인데 458년대에 2차 귀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라를 귀환한 왕이나 뒤에 있는 느헤미야를 귀환한 왕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닥사스다왕입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에 보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아닥사스다가 있거든요?

그 아닥사스다왕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보면 4장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아닥사스다왕이 나오거든요?

그 아닥사스다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 다른 왕입니다.

이름만 같지 흔한 왕의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을 했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왜 그럼 북 이스라엘은 포로귀환하지 않았을까?

남유다만 귀환을 했을까?

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지금까지 존속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 말보다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었을까?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었고 남유다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 북이스라엘에는 다윗왕가가 이미 없어져버렸죠.

하나님은 다윗왕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애초에 다윗왕가가 시작된 게 아니죠.

다윗 왕가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 북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었고 그들 마음속에 성전도 없었다.

마음과 환경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죠.

반대로 남유다에는 비록 하나님과 멀어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고 비록 훼파됐지만 성전도 있었고, 그 성전 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바벨론이 그 성전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버렸다면 문제가 되었을텐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그 북이스라엘에는 다른 이방인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 뺏겨버렸죠?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외국인과 같이 결혼을 함으로써 혼혈인들이 돼 버렸고 결국 민족정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부락을 형성하고 살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혈통을 지키면서 살았다는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 성경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아주 상세히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잃지 않고 살았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끌려간 바벨론에서 활동한 다니엘의 활동,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성공하더라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내내 형통했던 다니엘의 활동이나 아니면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70, 고레스왕의 70년 때에 귀환시켜주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다는 거에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에스라 같은 율법학자들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남유다는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순간에도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에요.

교사가 있었기에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배움이 그들을 죄로 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그들의 국가를 이루게 만든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사의 중요성이 되겠죠.

AD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다시 헤롯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한 랍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서 로마 장교에게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부숴도 좋으니까 딱 한 가지 학교만 하나 남겨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가 남아있다면 다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가르침이 미래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교사가 희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남유다의 상황은 북이스라엘보다 그렇게 썩 나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에스라 성경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방인과 결합한 유대인들 아들까지 낳고 손자까지 며느리까지 본 유대인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고 돼 있거든요? 별반 차이점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을 철저하게 깨우쳤고 결국 그들은 큰 아픔을 무릎 쓰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죠.

어떻게 자기 아내를 쉽게 쫓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며느리를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이방적인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그들을 파악했고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이 결심한 교사가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교사의 중요성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더욱더 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는 운동을 했는데요, 그 준비과정까지는 굉장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 회개운동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에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되고 모든 체제가 갖추어진 다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C444년에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언제 돌아왔다고요?

에스라는 BC458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민족적인 대 회개 운동이 일어 날 때까지 약 한 16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15년 내지 16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에스라는 아마 철저히 준비를 했을거에요.

혹은 혹자는 그 사이에 다시 잠깐 그 바벨론에 돌아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회개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에스라가 많은 준비를 했다 라는 거죠.

그 회개운동은 결국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느헤미야 8장을 봐보겠습니다. 8장 1절 입니다.
느8: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느8:2)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느8:3)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건너뛰겠습니다.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건너뛰어서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3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14절)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찌니라 하였고

건너뛰어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달 이십 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9장 1절 2절에는 대 회개 운동의 결과가 나오죠.

그들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굵은 배를 띄고 머리에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여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7월 절기에, 7월이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내지 10월입니다.

이스라엘의 9월내지 10월은 굉장히 더워요.

보통 성지순례를 추석연휴에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덥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더운 때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새벽에 몇 시를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하 5시간 내지 6시간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더운 무더위에 5시간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듣는다.

성경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 하니까 다 땅에 엎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몇 시간을 듣는다.

근데 말씀을 듣는 대상은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알아들을만한 아이건 노인이건 다 모였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장시간을 굉장히 더운 날에 그 모든 백성이 불편한 장소에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 다음엔 초막절을 지키기로 했고, 초막절 기간 내내 말씀을 들었고 결국 그 말씀이 끝나 끝나자 그들은 대회개 운동을 한 거에요.

이번에 우리가 공주수양관에서 또 광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서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또 하계수양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시간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장소적인 걸 따진다면 굉장히 편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들었고 소강당 광주 교회 소강당이나 대강당은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나오고 그리고 뭐 5시간 6시간을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니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불편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아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는데 집만큼 편한 곳은 없죠.

하지만 말씀을 듣는 환경이 좋아야 말씀이 잘 들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상황은 본다라면 그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했고 잘 들었고 그들의 삶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은 환경이 더 안 좋잖아요?

거기 대강당은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수 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땀 냄새에 그 더운 열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장소가 꼭 좋아야 말씀을 잘 듣는 건 아니다

광주교회 당은 전국에서 아마 제일 좋은 교회당일겁니다.

그렇다고해서 광주교회 어린이들의 신앙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가?

제일 좋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장소와 결과는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장소는 불편했지만 그들은 대 회개 운동을 했구요, 실제로 그들은 민족적인 정통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떠했길래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다시 에스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먼저 1절부터 에스라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먼저 여기를 볼게요.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을 보니까요 스라야는 에스라의 할아버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라야가 바로 나온 것은 어쩌면 스라야 때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대 제사장의 이름이 스라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나온 것 같거든요?

결국 아닥사스다왕 때에 있었던 이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그 계보를 쭉 올라가보면 2절에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독가문입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5절에 **아비수아의 십 삼대손이요 비느하스의 십 사대손이요 엘르아살의 십 오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 륙대손이라**

아론의 손자가 16대 손이 되겠죠.

참고로 아론의 족보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가 나답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비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네 번째 아들은 이다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죽죠.

잘 못 된 불을 그 드림으로써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게 되죠.

뒤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술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그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엘르아살 가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까 읽은 사독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스라가 나오죠.

이다말 가문에서 우리가 기억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아는 엘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문은 이제 망하겠죠.

뒤에 망할 때 마지막에 그 있었던 그 제사장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에 그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게 된 이유는 그 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모반에 참여했다가 폐위가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오죠.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으로 제사장이 계속 이어져 내려 왔는데 병행되어 왔는데 나중에 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히멜렉도 마찬가지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없어지게 됐구요

이제 엘르아살을 이은 이 가문만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민수기 25장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번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꾀를 쓰죠.

우상 숭배를 하게하고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행하므로 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 간음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을거라고.

신약 시대 때 이 가문은 이어져가지고 사두개인이 됩니다.

사독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가장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두개인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 돼 버리죠.

왜냐하면 유일한 제사장 집안이고 페르시아에서 나중에 행정적인 직분까지도 주게 되니까 제사 직분과 행정 직분을 다 권력을 다 쥐게 되고 굉장히

잘 살게 되고, 특권층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고 없어야 자기들이 유리하잖아요.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도.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현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발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 있는 에스라는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아론의 16대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그는 제사장 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신약시대에 보면 율법학자나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항상 대립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율법학자나 서기관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처음의 율법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율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전승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많은 성경들이 유실되어서 이 에스라가 구약성경 전체를 다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라는 다시 썼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구약 전체를 암송해서 적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율법에 익숙했다.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암송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성경 절반정도 암송한 형제가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뭐 계속 암송은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시편 1편부터 90편까지 암송 한다 암송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신양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다 암송했고 구약의 소선지서를 다 암송을 했던 전력이 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냐?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데 암송을 자주 했죠.

그래서 암송 단위를 권별로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성경 배우는 것에 그 감동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사람 5명만 모이면 신구약 성경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명이면 신구약 성경 다 외운다 이말이죠.

그정도로 열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성경 공부를 하러 200km를 걸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등에다가 그 괴나리봇짐 메고 자기 한 달치 식량 짊어지고 걸어오는 거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했던 때가 있는데 아마 에스라도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만들었는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공과 교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 묵상함으로써 자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싶고 저 역시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취해하는 태도는 말씀에 대한 연구이죠.

에스라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연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했죠?

철연장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무디어 질 수 있고 그러면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쓸모없게 되죠.

시편에 저희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칼날이 아주 예리하지만 쓰지 않다보면 둔해지고 그러면 전장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굉장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항상 말씀을 연구했다고 돼 있죠.

신약시대 때 그에 필적할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 역시 앉은자리에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쓴 게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그것을 쓴 거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지 잘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공과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스무 번 이상 보지 않으면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R.A. 토레이 박사가 한 말입니다.

본문을 스무 번 이상 읽어라.

계속적으로 읽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게 되는 거지 그냥 딱 보면 영감이 나오지 않죠.

바울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기록했느냐 근데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항상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바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저희의 그 좋은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을 하잖습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답을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리요? 질문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답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를 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공과교사들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 선다 라면 그 그렇게 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

을 바라는 건 도둑심보라고 하죠.

마음속으로 묵상 되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감과 만날 때 좋은 성과를 발휘하는 거지 전혀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를 보니까 마음의 중요성이 나오더라고요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간다는 거에요 마음의 간질을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간질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 칼을 드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마만큼 마음의 중요성이 그 연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제가 서울교회 모 전도사님께 그 말을 했어요

아 그럼 내가 체지방 제로 체지방 제로 팻제로 그 생각을 맨날 하면 살 다 빠지겠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 그러시더구만요

그건 그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도둑놈 심보를 강조한 겁니다.

그 전혀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지 않고 잘 가르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빨간 실로 잡아 놓으십시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에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참 즐겁잖습니까?

통장에 돈이 쌓여갑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어느 날 1억.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갑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암송했고 내일은 2장을 암송하고 모레는 3장을 암송하고 결국은 에베소서를 다 암송하고 디모데전서를 암송하고 후서를 암송하고.

예전에 청년들 디모데 전후서 암송한 때가 있었죠?

그때의 그 마음이 즐겁지 않던가 내가 디모데 전서를 다 암송했다 그때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던가?

그런 즐거움이 그 재물에 비유가 돼 있습니다.

실제를 그리스도인이 만일 마음속에 마음이 풍성히 있다면 정말 돈많은 사

람 부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97절도 보겠습니다.

97장도 아니 9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침에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루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거에요

제가 말한 그 성경을 절반정도 외웠다는 그 형제는 정말 매일 매 시간을 묵상을 했어요.

버스를 타면 괜히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을 했습니다.

혹 시간이 남으면 기도를 했죠.

그렇게 계속적인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암송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형제가 시편을 암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다른 성경은 대부분 줄거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암송이 용이합니다.

그러지 않은 성경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대상의 족보를 암송한다 그러면 참 그거 머리에 쥐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은 사실 굉장히 암송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아가서 역시 암송하기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절반정도 암송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은 그런 묵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일 묵상한다고 그랬죠?

뒤로 넘겨서 14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공과 교사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겁니다.

내일이 공과인데 말씀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잠이 안 오잖아요.

6시 되면 깨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짧은 시간 3~4시간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성경을 베고 자죠 이렇게.

혹시라도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 올까봐.

그런데 그렇게 베고 자면 실제로 꿈속에서 공과를 한 2번 정도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공과인데 준비가 안 됐어요.

자면서 공과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잠을 들다보니까 꿈속에서 공과를 두 번 정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나서 오후에 자매님들이 신랄하게 비판 하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다시 고치죠.

그래서 다음날 공과를 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이 있다라면 어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것들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에스라 7장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두 번째는 준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 겁니까?

저희는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자기는 행하려 하지 않는다 였죠.

그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워낙에 말을 잘 하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전혀 안하니까.

결국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자신은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주 받고 더 버림 받은 거죠.

바울도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때부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거에요

만일 에스라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연구한 목적이 자기가 먼저 준행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빨리 더 많은 걸 깨우쳐 주셨고 자기몸 안에 채워서 넘쳐지게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가르침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화있을찐저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전체를 깨우쳤습니다.

우리도 어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는 가운데 성경을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영적인 분별력이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죠?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영적인 분별력이 첫 번째인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실제로 이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에스라 7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례들이 한 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7장 네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8장 21절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왕강 아하와강 강가에서 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 정도 여정이 있는데 그 길에 많은 도적떼들이 있잖아요?

많은 재물 게다가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도적들이 분명히 이들을 노릴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민간인으로 2천명이 채 안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 에스라는 왕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군사를 보내 주십시요 하면 분명히 보내줄겁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았죠.

왜냐면 에스라는 이름자체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항상 가르치기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선을 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왕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이율배반이 되잖아요?

가르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준다고 가르치고 실제로는 왕의 도움을 구한다면 옳지 않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는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걸 버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개월 만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자기 이웃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뒤에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연합해가지고 결혼함으로써 그 죄가 심각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들었을 때 에스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다 잘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에스라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범죄 했다고 이야기하는거지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도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70이레의 예언을 받기 전에 다니엘은 자복기도를 했는데 우리와 우리 열조가 범 죄 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 죄 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한 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사람들은 자기 형제요 자매잖아요. 가족이거든요.

그럼 자기 가족이 범 죄 했는데 저놈이 범 죄 했다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서 떨어지면 대표팀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일 대표 팀이 잘못했다 혹은 감독이 잘못 했다로 말하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법이 굉장히 관대해요

빚도 안식년이 되면 다 탕감을 해줘라 희년(7년? 확인해보세요)이 되면 전부 다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웃 중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라

자기 땅에서 곡식을 베더라도 한 뭇은 남겨 놔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살펴라 라고 되어있고 형이 죽으면 헝수를 돌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가족 한 형제라는 특징이죠.

그런 그 가족 중에서 일부가 범 죄 했다 어떻게 해야되느냐?

에스라는 우리가 범 죄 했다고 자복기도를 했거든요?

에스라가 만일 그들을 비판 했더라면 그들은 반발하면서 나왔을거에요

그러나 에스라가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부끄럽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내가 들어가잖아요

에스라는 자기 죄로 봤다는거에요. 같은 핏줄이니까.

자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한 가족이었죠.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며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고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들의 잘한 거 뿐 아니라 못한 것도 그들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슬픔이나 아픔도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슬픔을 당하면 모두 슬픔 모든 지체가 슬픔과 아픔을 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다면 한 지체가 아니죠

탈무드에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다 한사람이냐 두사람이냐 한쪽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둘 다 앗 뜨거 하면 한 몸이고 한쪽은 웃고 한쪽이 앗뜨거 그러면 두 몸이다

둘이다.

같은 아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이냐? 우리가 한 지체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범 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우는데 나는 즐거워한다든지 남들은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들의 즐거움에 관심이 없다면 한 지체가 아니죠.

이번에 저희 형제 교사들 워크샵 갔잖아요.

굉장히 늦게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초등부를 만들어갈지 굉장히 많은 건설적인 발전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모든 교사들이 신입교사까지도 굉장한 의견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에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구나

자 그러나 더 나은 점은 더 많은 장점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많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좋겠다

그 수련회 끝나고 마지막에 그 노화도 선착장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고 다 이제 광주로 각자 돌아가기로 했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초상이 났다는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를 받으려고 옆으로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앞에 에어컨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가느라 못 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찍었거든요 모서리에 굉장히 세게 부딪혔는데 다른 분들이 다 보고 계셔서 안 아픈 척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척 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제 모습보이고 이용승형제님 차 탄 다음에 머리를 만져보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어휴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졌잖아요

근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요 야 너 눈 똑 바로 안 봐? 너 어디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다쳤잖아

야 너 손 너 좀 혼 좀 내주라.

손이 눈을 퍽 치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느냐?

다리는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안 보임 my way 내 길을 가련다 가느냐 그러지 안잖아요.

머리가 딱 부딪히니까 대번에 가던 길을 멈추고 머리를 감싸 쥐고 아~ 괜찮습니까?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다 아파하잖아요.

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이 머리를 감싸주잖아요.

눈은 왜 너 잘못 했냐 그러지 않고 손이 머리 아프겠다.

내가 감싸줄게 그러잖아요.

다리도 일단 하던 일을 멈추잖습니까?

눈도 반성을 많이 했겠죠

앞으로 똑바로 보자 나 때문에 온 지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한 몸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까와 같은 나와 상관없다 라면 그건 한 몸이 아니겠죠.

에스라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연구했고 자기 삶에 준행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범 죄 했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했고 결국 그들이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방여인들을 다 끊었던 거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준행하고 그다음에 가르쳤다고 돼 있죠.

근데 에스라가 가르친 내용이 정확히 어떤건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친 것은 단지 성경을 낭독한 게 아닙니다.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바벨론 어를 썼을 겁니다.

결국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가 돼 버렸죠.

70년 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에스라가 자기는 히브리어에 익숙하다고 해서 이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그대로 낭독하고 지나갔다면 이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에요.

근데 에스라는 낭독을 할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동역자를 옆에 두었죠.

그 동역자들이 나중에 율법학자들의 시초가 되거든요?

이 율법학자들 이 동역자들은 에스라가 읽은 내용을 자기가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바꾸어서 전해준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깨달았다고 돼있죠.

내가 아는 것과 듣는 사람이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아노 선생에게 배운 내 아이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럴러면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연구 돼야합니다.

여기는 뜻을 해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구약성경을 해석해서 굉장히 많은 책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집대성 된 것이 탈무드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탈무드는 빌려가려면 트럭을 빌려가라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전달 한거죠.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탈무드 책은 이야기책처럼 돼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는 예화를 든거라든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든 건데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을 많이 연구해서 적어 놓은거에요.

그래서 여기 만일 공과를 1학년을 하신다.

그런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2학년이라면 2학년에 맞게 6학년이라면 6학년에 맞게 듣는 대상이 교사라면 교사에 맞게 가르치지 않으면 겨우 낭독만 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르침이 돼 버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이 아니라 14장 14장입니다.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설교이다.

방언일천마디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방언 1만 마디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돼 있잖아요.

결심하니라.

제가 아까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마음이라는 그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한국에서 6부작을 제작한 것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음이 의지와 행동을 결정해 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결국 에스라 혼자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사의 직분에 세워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더욱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변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